

## 불교계 대북지원사업 중단 위기

### 주요 중단 분담금 미납... 2억4천만원 확보 못해

불교계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구가 6월 말 실시할 예정인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이 2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불교계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면서 한 정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돼 불교계 신뢰도가 추락하고, 남북불교교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종단협 소속 26개 종단 가운데 대북지원 분담액을 납부한 종단은 절반인 13개에 불과하다. 완납했더라도 모두 140~250만원의 소액 규모이며, 지원예산 규모가 큰 조계종(분담액 1억7000만원) 태고종(1000만원) 천태종(5000만원) 진각종(8000만원) 총지종(3500만원) 등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대북지원금 1억7천8백만원을 미납한 조계종은 24일 총무원회의를 열어 실질지원 가능성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2000만원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별로부터 올 한해 4억3천여만원을 약정 받아 정부로부터 총 3억6천만원의 남북협력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는 종단협은 올 상반기, 정부지원액과 같은 1억2천300만원

정지지만 2000만원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별로부터 올 한해 4억3천여만원을 약정 받아 정부로부터 총 3억6천만원의 남북협력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는 종단협은 올 상반기, 정부지원액과 같은 1억2천300만원

정지지만 2000만원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별로부터 올 한해 4억3천여만원을 약정 받아 정부로부터 총 3억6천만원의 남북협력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는 종단협은 올 상반기, 정부지원액과 같은 1억2천300만원

정도를 북한에 지원해야 통일부에 의한 국고환수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종단협의 한 관계자는 "대북지원에 차질을 빚을 경우 통일을 앞두고 꼭 필요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일체 참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단협은 2002년도 하반기(2002년 7월~2003년 6월) 지원사업에 주요종단들의 공식참여계획이 없어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비 신청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북지원예산은 기독교계가 매년 200여억원인 반면, 불교계는 약 10%인 20여억원 수준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news.com



한국축구팀이 선전함에 따라 거리응원 인원이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응원단이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

### 세계가 놀란 '한국인의 저력'

'역동성 국가발전 동력 삼아야' 여론  
월드컵이 진행될수록 온 국민의 열정적인 응원이 한층 기세를 높이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4일 폴란드전 당시 전국적으로 49만8천명이던 거리응원은 6일 미국전 76만9천여명, 14일 포르투갈전 278만6천여명, 18일 이탈리아전 420여만명, 22일 스페인전 50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하나된 국민의 응원으로 한국팀은 전 세계인이 경탄할 정도로 기량을 펼쳐며 패자를 이겼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저력 확인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건국대 성태용 교수는 "한국팀의 선전과 이에 따른 자신감, 높아진 국가이미지들을 활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로 확산시켜 국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원기사 9·20면**

중국불교협회 공식 초청  
조계종, 한중수교 10돌 기념  
조계종이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고 한중불교계의 선진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불교협회 대표단을 한국에 공식 초청한다. 중국불교협회 도승인 수서 부회장을 비롯 중국 8개 성(省), 시(市), 4대 명산, 한어, 광어, 팔리어계 등 3대 언어 대표 총 19명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초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불교협회대표단은 해인사, 불국사, 직지사 등 전통사찰 참배와 전통강연, 선방,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을 견학한다. 김원우 기자

50만→77만→279만→420만→500만명

### 불교문화 체험하고 신심도 키우고

####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한대불교신문은 불교 알파인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미륵종찰 법주사(사건)와 수영장등 놀이시설이 가득한 유스타온,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속리산 탐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뜻깊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란다.

일정: 2002년 7월 30일(화)~8월 1일(목) 2박3일  
장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온 일대  
대상: 초등하교 1~6학년(선착순 300명)  
참가비: 7만원  
준비물: 정심 도시락(양),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의전화: 02-738-7860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발: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착: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봉은사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찬: (재)보덕학회, 신수회  
후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아름선원, 봉은사

김재경 기자 gkim@buddhapanews.com

법석 초대 **의룡 스님** 직지사 강주  
"수행할 하면 그 속의 불성자리가 아이 자라듯 하여 마음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이란 삼매에 드는 길 아닙니까.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물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선 수행을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불교학자들의 수행체험

'수행해 보지 않은 사람이 수행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에 대해 불교학자들은 어느 불교학자의 말처럼 대부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답할 것이다. "불교학자는 지도 그리는 장인(匠人)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지도 그리는 장인의 경우 히말라야 산에 가 본 적이 없어도, 그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여행기를 참조할 경우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듯이, 불교학자들은 깨닫지 못했어도 과거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참조해 깨달음을 가는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불교학 세미나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불교학술단체가 이론과 수행의 접목을 시도하는 워크숍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진다.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스님)가 7월 13~14일 수덕사에서 명상과 불교수행-간화선과 영불선, 위빠사나를 주제로 여는 여름 워크숍이 그것. 간화선과 영불선, 위빠사나 등 전통 불교수행법에 대한 고찰과 실수(實踐)까지 겸한, 이른바 '실천 불교학(Practical Buddhism)'을 모색하는 보기드문 자리다. 이번 워크숍의 제 1부 '불교 수행전통에 대한 고찰'에서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유진스님이 '간화선의 이론'을,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이 '위빠사나의 이론'을, 용타스님(귀산사)이 '영불선의 이론과 실수'를 각각 발제한다. 제 2부 '간화선과 위빠사나 실수'에서는 이평래(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무애스님(수덕사 선원 입승)의 간화선 실수, 불타락기타스님(보리수 선원장)의 위빠사나 실수 등이 진행되고 종합토론이 열린다. 불교학연구회 회장 해주스님은 "이번 워크숍이 살아있는 불교 연구풍토를 확산시키고, 논리만 쟁쟁해 있는 현 불교학계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재경(취재1부 차장)

### 물자의 생각

- 금주의 주제: 불교와 직업
1. 불교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①상당히 준다 ②주는 편이다 ③별 상관없다 ④전혀 주지 않는다.
  2. 불자님의 경우 직업 선택에 있어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①많이 받았다 ②조금 받았다 ③받지 않았다.
- 실문 참여: 6월 2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덤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6호 9면에 실습니다.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자: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마음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안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이질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심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냈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도서출판 슈킴 ■ 전화: 02-736-7148, 723-3856 ■ 팩스: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